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재희 인문학 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가짜 뉴스 대처법 '필찰' (必察)

는 도끼다(滅身之斧, 멸신지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함부로 말을 하면, 그 말이 도끼가 되어 나를 찍기도 하고, 내 인생에 큰 근심이 될 수도 있으니 함부로 입을...

길에서 어깨 너머로 들은 이야기를 길에서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논어'에서 말한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그저 길거리에서 듣고 길거리에서 함부로 말해버리는 것(道聽塗說, 도청도설)이야말로 자신의 인격을 포기하는 일(德之棄, 덕지기)이다.'

'사람들이 모두 옳다고 이야기해도(衆人好之, 중인호지), 반드시 직접 살펴서 판단하고(必察焉, 필찰

언), 모든 사람이 그러다고 해도(衆人惡之, 중인오지), 반드시 직접 살펴서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必察焉, 필찰언).'

가짜 뉴스가 판치는 요즘 시대를 말잔치의 시대라고 한다. 진실은 존재하지 않고, 의도된 거짓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다. 정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든 혼란한 시대다.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우리 중에 하나

폭력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통해 그게 전부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없다. 세상의 모든 존재, 특히 인간 존재에 있어서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인간 존재성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그리고 그 다름을 통해 서로가 성장하고 발전의 기회를 얻기까지 한다. 우리의 역사가 그랬고, 우리의 상호적 관계성이 그랬으며, 우리 사회의 발전도 그러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증거하고 있는 이주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당황스럽다. 이주민이 동아시아인이거나 피부색이 조금만 짙기라도 하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안에 왜 있고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

내 주변의 누군가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의 마음과 판단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내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저런 잘못과 죄를 지을 수 있지? 어찌 그렇게 살까?'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 중에 하나다. 누구나 실수와 죄 그리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그 누군가는 '나'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오 복음 25장 40절)

기고



최혜란 도시계획기술사

광천터미널 살리는 혁신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서 도시 광주를 생각할 때 눈에 띄는 것은 도시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이다.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공공 청사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 시설은 복합적인 공공서비스 수 증가에도 용적률-건폐율-입지 제한 등으로 인해 단일-평면적 활용으로 이용률이 낮다.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파리가 15분 도시로 변모하는 등 일상과 시간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도 마찬가지로 광주시청, 광주종합버스터미널(광천터미널) 등의 주요 공공시설과 역세권 주변 복합개발로 주거와 여가를 동시에 누리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기능의 확장 및 복합화가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 활동 인구가 점점 더 줄고,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로 자가용 운전자와 고속철도 KTX-SRT의 이용객은 점점 더 늘어났다.

계획 시설 입체 복합화가 중요하다. 광주신세계 증축 계획안은 현재 무전대로 도로 선형 일부를 변경하고 지하 차도 건설을 골자로 제안하고 있다.

단순히 광주신세계 해당 부지만 고밀·복합 개발하는 것보다 지역 인프라 활성화가 필요하다. 백화점과 유스퀘어, 금호월드 등 상생 발전을 포함한 거시적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공간을 구성하고 마스터플랜(기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광주는 다양한 사회 구조의 전환을 배경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직장·거주 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도 인구 감소 시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 혁신 구역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광주의 미래 변화와 새로운 공간 수요에 대응해 교통 혼잡, 불균형, 환경 오염, 사회적 배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社說

윤 “5월 정신은 헌법 정신”…개헌 해법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임수민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은 헌법 정신”이라며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정문(민주의 문)을 ‘5월의 어머니’ 15명과 함께 비를 맞으며 입장,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영령을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정문(민주의 문)을 ‘5월의 어머니’ 15명과 함께 비를 맞으며 입장,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영령을 추모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한 광주 지역 사회의 평가는 엇갈렸다. 보수 진영 대

평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 정신 계승을 다짐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5·18의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해 애곡과 혐오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 통합을 앞당기기 위해 꼭 필요하다.

총선이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 5·18 정신 헌법 수록 추진의 적기다. 여야 정치권은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공방만 벌일 게 아니라 내년 총선과 함께 원 포인트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송정역·광산서 5·18 사적지 지정 적극 검토해야

광주 광산구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현장을 사적지로 지정하는 절차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광산구에는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싸운 역사적 현장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광주 지역 5·18민주화운동 사적지가 동구에 15개소, 서구 여섯 개소, 남구 세 개소, 북구에 다섯 개소가 각각 지정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다. 그 결과 광산구는 송정역과 광산경찰서를 사적지 지정 후보지로 발굴했다.

광산구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자료·증언 정리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께 두 곳에 대한 사적지 지정 신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無等鼓

인 사람이라도 능히 부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가장이 직장과 가정에서 눈치를 보는 상황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보편화된 산업화 이후의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짙다.

50대 가정들의 암과 심뇌혈관 질환 발병률, 고독사 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가정의 날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곡(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